

출판 소식

서운선사법어집 발간

이 목당(二木堂) 서운(瑞雲)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서운선사법어집>이 발간됐다.

서운문도회에서 펴낸 이 법어집은 방승작가 윤정광씨가 서운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법어와 오도승을 비롯 스님이 평소 집필했던 글들을 모아 놓았다. 또한 스님의 생전모습을 담은 화보도 수록했다.

이 법어집은 방승작가 윤정광씨가 서운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법어와 오도승을 비롯 스님이 평소 집필했던 글들을 모아 놓았다. 또한 스님의 생전모습을 담은 화보도 수록했다.

여성관련 문헌자료 전시

재야 서지학자 박영돈씨가 그동안 수집해 온 우리나라 여성문인의 글씨, 탁본, 여성과 관계된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한자리에 모은 <한국 여성관계 문헌자료 전시회>를 31일까지 교보문고 전시장에서 연다.

한국에서가톨릭의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허난설헌의 시집인 <난설집>, 신사임당의 필본, 탁본 <팔양경>, <인락국전> 필사본 등 120여종의 선본이 있다.

'화두와...' 가을호 나와

계간(화두와 실천)(실천불교전국승가회 刊) 가을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특히 기획시리즈 네 번째 '유전공학의 발달과 인간성실'을 통해 유전공학과 불교인간, 유전공학과 불교사상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정승석교수(동국대)는 '유전공학과 불교사상' 제하의 글에서 "생명복제는 업의 의타(依他)복제이며 유전공학은 윤회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발달한 것"이라면서 "공업공생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받아들일때 유전공학이 인간의 자기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청소년 권장도서 35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제27차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을 선정 발표했다. <완경과종교> (서울의 문화유산탐방기) <그리운 것들은 산위에 있다>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등을 비롯 문학, 역사, 정치, 경영 등 10개분야 총 35종이다.

통도사 실측보고서 나왔다

불교건축 상징성·기법 자세히 소개 사진·도면실어 복원자료 활용가치

한국 사찰건축의 총체적인 축도로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연구대상으로 꼽히는 통도사의 핵심당사인 대웅전과 사리탑을 실측조사한 <통도사 대웅전 및 사리탑 실측조사보고서>(총 429쪽)가 나왔다.

이번 통도사 실측조사보고서는 지난 96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지정문화재 재평가 과정에서 대웅전과 금강계단이 국보 제290호로 승격지정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실시된 결과들을 묶은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2억원이 소용된 이번 실측작업은 불보종할 통도사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동안 금산사, 실상사 등 몇몇 사찰의 주요 목조건물에 대한 실측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처럼 전체적으로 실측작업이 이뤄지고 조사보고서가 발간되기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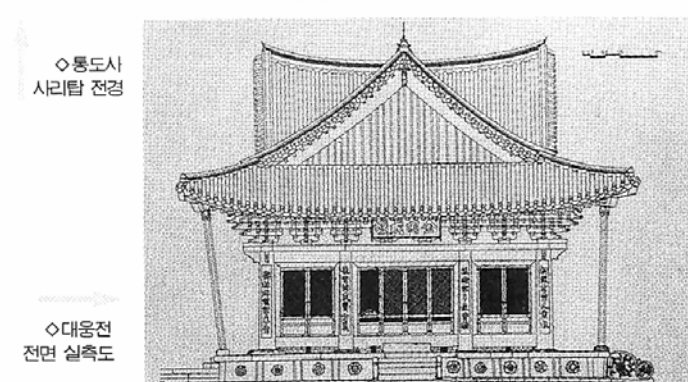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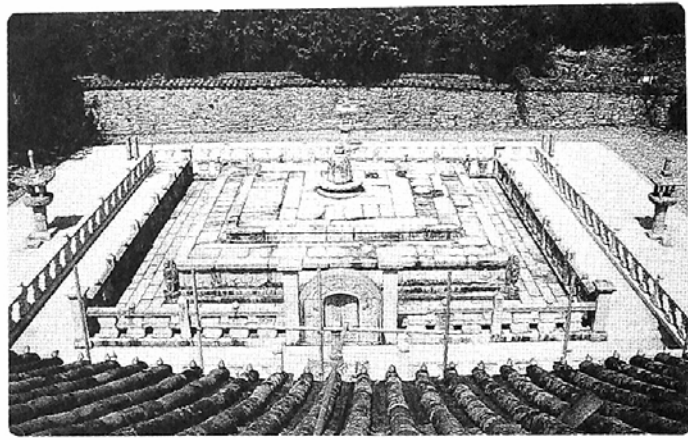
이 책은 △통도사의 연혁 및 성보문화재(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법하스님) △통도사의 건축(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소장) △통

도사 건축의 조영사와 기법구성(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열교수) △통도사 석조금강계단의 연구(동국대 문명대학교수) △통도사 대웅전 실측조사(우리건축사무소 김태조소장, 대한건축연구소 심대섭대표) △중합고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분마다 사진과 도면그림을 실어 통도사의 전체적인 면모를 상세히 정리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실측조사 대상인 대웅전과 사리탑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자료와 심도깊은 논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건축이 가졌던 모든 상징과 공간적 기법들이 하나의 질속에 응집되어 있음을 낱알히 보여준다.

특히 책의 앞부분에서 통도사 전경과 대웅전, 사리탑을 비롯 통도사의 구성구성을 원색화보로 담았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실측한 도면도관 전체를 실어 복원자료로서 활용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통도사 사리탑 전경

○대웅전 전면 실측도



"신라 범종등 불교공예품 용성"

이호관씨 '한국의 금속공예' 펴내

지난해 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서 정년 퇴직한 이호관 문화재전문위원이 한국 금속공예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한국의 금속공예>(문예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이씨는 "우리의 생

활전통과 관습, 고유신앙에 불교의 전래에 따라 가장 화려하고 다 양했던 것이 삼국시대의 금속공예 품이었다"면서 "이에 비해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의 강한 영향을 받아 중국적인 것으로 변질돼 간

계 공예품이 발달했다"고 고찰하고 있다. 또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를 계승하면서도 특유의 조화의 묘와 비례의 미가 돋보였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 정책에 따라 불교의 영향이래 발전했던 금속공예가 자연히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책에서 주조·단조 등의 수법과 도금 및 입사 삼각 등의 장식기법이 각 시대별로 특색을 갖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고전 발굴보존 정부기구 필요"

애서가클럽, '문화유산으로서 책' 심포지엄

책은 그 자체가 전통과 문화를 전하는 중요한 매체이자 우리선조들의 생활과 생각을 후대에 까지 전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한국애서가클럽(회장 정성구)이 지난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책' 학술심포지엄에서 문화유산인 책의 올바른 전승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서 윤병태교수(충남대)는 "책도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문화재로서의 책 보존과 활성화에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남권희교수(경북대)는 정부부처 산하에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고전적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해외에 소

장되어 있는 자료 발굴과 사찰소장의 자료발굴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문화재관리국 제2과장인 고수길씨는 전적의 일반공개, 노출을 위한 지정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가지정전적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점검을 계속하고, 유물의 소독과 수장금고의 대여와 수리, 복원 및 영인사업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적문화재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심경호교수(고려대)는 "전적문화재는 발굴보존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유산 사랑 "자주 접하지"

조직위 '문화유산을 찾아서' 펴내

문화유산의 참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현장을 자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가 있는 답사-문화유산을 찾아서>는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전국의 문화유산을 안내하기 위해 펴낸 책이다.

이 책은 최근의 답사가 전화되어 가고 있는데 발맞춰 주제가 있는 답사 안내서로서 전문가 안내 없이도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찾아가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통마을, 문학작품의 산실, 정자 및 누각, 선조들의 노래가라, 주요사찰, 국난극복의 애국현장 등 11개 대주제 아래 각각 답사지개요, 문화유적, 교통지도, 볼거리,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는 지난해 부터 문화유산 답사안내 정보를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netsgo.com/dapsa> 이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인문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대원정사
4	부대문맹해(미묘한 해)	일타	효림
5	사실무재란 무엇인가	효림	행원
6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7	명상길라잡이	박석도	도솔
8	신만아심경강의	혜담	불교시대사
9	선(작은책 2)	석지현	민족사
10	조주록 탐구	고미록	삼양

구입문의: (02)737-0695

책이 있는 시간 · 책이 있는 공간 · 시공사

마음으로 떠나는 사찰여행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미영순 지음/295쪽/값 7,000원

가끔은 배낭 속에 썩안겨 책겨 넣고 먼 길을 떠난다.
세상이, 그 세상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궁금해서,
바쁠 것도 없고 기쁠 일이란 처음부터 잊지도 않다.
내 앞의 그 무수한 이들이 밟고 간 길을
형형색색 꽃노래로 따라가노라면
발 밑에 다져진 흙만큼이나 많은 그들의 세상살이가 펼쳐진다.
마주오는 이의 옷깃 스침도 소중한
달미가 동쪽으로 간 듯도 소중한.
그 소중한 인연 따라서
물 소리 바람 소리 따라서
그냥 구름처럼
내가 없는 세상 속으로 나를 주르러 훌쩍 길을 떠난다.

내가 없는 세상 속으로 나를 주르러 간다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익법 지음/값 6,000원
살을 꿰뚫은 1,700가지 짙막한 생각들

靑으로의 초대
스즈키 슌류 지음/최세만 옮김/값 5,000원
어렵게만 느꼈던 선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는 안내서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
김호성 지음/값 6,500원
숨어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

인생 美學
앤소니. 샐리 샌스 편지/김도현 옮김
/값 6,500원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1백 살까지
각 나이에 대한 단상을 세계 저명인사들의
편지와 일기, 작품과 연설문 등에서
가려 뽑아 놓은, 나이에 관한 연설문지

유서
박삼중 외 14인/신국만 옮김 5,500원
이 지상에 뿌리고 가고 싶은
15인의 마지막 말들

밤새 훌쩍 크는 아이들
김영희 지음/값 6,000원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로 불리는 김영희가
그녀의 다섯 아이와 밟아는 사랑과 전념,
그리고 고통과 화해의 솔직한 이야기

발끝에서 손끝까지
김영희 지음/값 7,000원
가슴 깊이 담았다가 소설로 뿜어낸
진한 사랑의 이야기